

대 중국 연구·사업에 있어서의 다자간협력에 관한 고찰

南 載 祐*

< 목 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대 중국 교류, 사업 상 다자간협력의 필요성
제1절 우리나라 대 중국 교류, 사업 현황과 한계
제2절 다자간협력의 장점
제3장 대 중국 다자간협력 분야와 모델
제1절 추진 주체와 분야
제2절 실무 모델 - 황해프로젝트
제4장 결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우리나라와 중국 두 나라는 태생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1992년 8월 각기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이름 하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진행된 양국 간의 교류는 그 발전의 양과 질 측면 모두에서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오고 있다.

한-중 양국 관계가 띠고 있는 ‘떨 수 없는’ 성격과 현상은 이념적 안보적 장애와 그로 인한 외교적 단절이 존재했던 1949-1992년 사이의 기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동 기간 동안에도 미국과 소련을 각각의 축으로 하는 동·서 양 진영 간의 냉전적 국제 역학관계에 주로 영향 받으며 두 나라 사이에는 ‘적대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또 하나의 인연이 형성되어 있었다.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사망한 후의 권력투쟁과 이념논쟁을 거쳐 1978년 11월의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三中全會)를 계기로 전개되기 시작한 중국의 개혁개방(改革開放)정책은 동서화해 분위기라는 국제적 환경과 어울리며 그에 앞서 수십 년 간에 걸쳐 적대적으로 유지됐던 한-중 양국 관계에도 해빙과 개화의 전기를 가져오기 시작했으며, 그는 곧 경제를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모색과 추진을 의미한 결과 이제 어느 한 쪽이든 상대방에게 있어 중요한 위치를 가질 정도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20-30년간 전개된 한-중 양국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이전의 대부분의 기간에 존재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는 다른 현상은 경제적 문화적 선진화 정도에 있어 한국 측이 보이는 비교 우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서구 문명의 이해와 도입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적 시스템의 도입에 있어서의 추진 속도와 결과에 기인하고 있다. 서구적 시스템에의 적응과 그 응용을 통한 발전에 있어 우리나라는 국가와 사회 거의 전반에 걸쳐 중국에 대해 적지 않게 앞서 있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며,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과정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찾아내고 실천하며 이러한 추세를 유지 발전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미처 올라서지 못한 채 상대적 부진에 빠져 있는 사이 중국은 최근 십여 년 간 평균 10%선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우리와의 격차를 급속히 좁혀오고 있는 한편으로 또 다른 이웃나라인 선진국, 일본은 흔히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장기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며 우리나라에 대한 우월적 간격을 더 벌리려 하고 있어 소위 ‘샌드위치 현상’¹⁾이 현실화돼 가는 듯 한 작금의 상황은 이러한 당위성을

1) 동 어휘는 2007년 초 삼성그룹 이 건희 회장이 사용함으로써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으로서, 주로 기술력 등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 후진국인 중국과 선진국인 일본 사이에 위치하며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낸 것이다. 이 외에도 현대경제연구원 이 발간한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식경제(2007년 가을호)’에서의 “우리나라가 경제활동에서 지식과 정보를 핵심으로 사용하는 수준(지식자산)이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여전히 뒤쳐져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추격당하는 샌드위치 상

* 영동대학교 중국어중국통상학과 겸임교수

절체적 임무로조차 각인시키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경제 외적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상 중국 정부 차원에서 소위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이름하에 은근하면서도 주도면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간파할 수 있는 메시지는, 중국 측이 국제무대에서의 자국의 위상 강화를 상징하며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표어들 중 하나인 ‘화평굴기(和平崛起)’²⁾가 담고 있을 실제적 의미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우리나라가 중국을 상대함에 있어 단순히 역사적 진실에 대한 고증과 그에 근거한 논쟁을 넘어 국가와 민족의 존망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적 각오와 대비를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동하는 국제무대에서 한 국가와 사회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역량을 제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를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보존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도출해내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되듯 인간들이 모여 구성한 유기체인 국가도 아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며, 국가 간 상호 작용 내지 의존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화 추세는 무엇보다 국제 관계에 있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나라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의 증대를 의미한다.

지난 기간 우리나라 각 주체들이 진행한 대 중국 관련 연구와 실무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개 한-중 양국 간 관계의 틀에 한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그 배경은 지금까지의 괄목할만한 발전 추세에 안주해 있거나, 혹은, 그를 넘을 만한 능력이 결여돼 있기 때문임을 추정할 수 있다. 갈수록 확대되며 다층화해 가고 있는 동시에 상호 의존도가 나날이 심화돼가는 한-중 관계에 대한 연구와 실무 측면에 있어 기존의 상투적이면서도 안일하기 조차한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개척하기 위한 한 새로운 시도로서 전 세계적 흐름인 글로벌·다자적 시각과 노력을 접목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그를 통해 현실적 가치를 지닌 대안

태”라는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현 중국 국가주석인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이후 채택된 중국의 정책들 중 하나로 그 이전의 상태인 ‘도광양희(韜光養晦 ** 빛을 숨기고 힘을 키움’을 의미)’적 수준에서 벗어나 ‘당당히 평화 속에 강대국의 길을 감’을 의미한다.

의 도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중 양국 교류는 그 다양성과 양적 측면 모두에 있어 급격한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 주제 하의 연구 내에서도 대상과 폭에 있어 세분화되고 심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 중국 교류와 협력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일반적 패턴(Pattern)인 쌍무적 현상을 넘어 다자간협력을 추진하며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의미와 가치를 제기하고 정립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는 바탕 위에 그를, 한-중 양국 간에 보다 현실성을 띠며 표면화되고 있는, 경제 및 인문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실제 사업에 적용하는 방법과 모델의 모색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기 생산된 문헌·실무 사례들 및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참고자료로 삼고 있다.

제2장. 대 중국 교류·사업 상 다자간협력의 필요성

제1절 우리나라 대 중국 교류·사업 현황과 한계

1. 현황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각 분야에 걸친 교류와 사업 추진은 국교 수립 이전부터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한 간접적 경로를 방법을 통하거나, 혹은, 관계 당국의 묵시적 허락 하에 사실 상의 직접적 방식으로 이뤄진 바 있으며, 실리적 측면에서 양국이 서로에게 갖고 있던 수요는 1992년 국교수립 이후 다각적으로 맞춰질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를 가리키는 공식적 표현은 ‘전면적 동반자관계’라고 할 것으로서, 중국 측에 의해 “양국은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빠르게 발전되어 정치적으로 서로 신뢰하며 경제적으로 호혜하고, 인문적으로 서로 배우는 기쁨을 할만한 관계가 형성됐다…… 우리는 중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계속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³⁾고 공개적으로 천명된 바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주창되어 지난 약 30년간 중국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기조 노선인 개혁개방 정책은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방’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으로서, 그 바탕에는 ‘흑묘백묘(黑貓白貓)론’⁴⁾적 실용주의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그에 영향 받아 전개되기 시작됐다고 할 한-중 양국관계 역시 이념이나 정치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교류에 치중돼 왔으며, 이 점은 무엇보다 통계수치를 통해서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

우선 수출입에 있어 -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⁵⁾ -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 2001년 이래)⁶⁾ 이자 3대 수입국인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표 1〉 양국간 교역 추이 (단위 : USD억)

구 분	1992	2000	2003	2004	2005
교역액	63.7	312.5	570.2	793.5	1,005.8
對中수출	26.5	184.5	351.1	497.7	619.9
對中수입	37.2	128.0	219.1	295.8	385.9
교역수지	-10.7	56.5	132.0	201.9	233.9

** 자료 : KOTIS

〈표 2〉 우리의 주요 교역국과의 교역현황 (2005년 기준, 단위 : USD억)

- 3) 동 표현은 구교 수립 15주년을 앞두고 2007년 8월 22일 개막된 ‘動感韓國(Dynamic Korea)’ 행사에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보낸 축하메시지의 일부이다.
- 4)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라는 덩샤오핑의 말로서 당초 그의 고향인 쓰촨(四川)의 속담에서 유래했다.
- 5) 동 순위는 통계방식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즉, 1997년 중국에 회귀하였으나 소위 ‘일국양제(一國兩制)’ 적 체제 하에서 SAR(Special Administrative Area) 대우를 받는 홍콩을 경우 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경우(** 중국 측 주장)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 6) 1993년 이래 대 중국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국명	수출	수입	교역액	무역수지
중국	620	38.6	1,006	234
일본	241	48.4	725	-243
미국	414	306	719	108

** 자료 : KOTIS

〈표 3〉 대 중국 교역 의존도

구분	1992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교역총액 (A)	1,584.1	2,255.9	3,327.5	3,145.9	3,726.5	4,784.2	5,456.6
교역액 (B)	63.7	184.3	312.5	411.5	570.2	793.5	1,005.8
교역비중(%) (B/A)	4.0	8.2	9.4	13.1	15.3	16.6	18.4

** 자료 : KOTIS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주로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투자 흡인력, 저렴한 인건비, 방대한 중국시장진출시도 등에 기인하여 우리의 대 중국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대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투자 진출 건수에 있어 우리나라의 제1위 목적국인 동시에 실제 투자 누계기준으로도 제2위 투자대상국으로서, 이는 그 안에 담겨 있을 여러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 및 개인들의 국제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자연스런 과정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표 4〉 우리나라 대 중국 투자 추이 (단위 : USD억; 건)

구 분	2000	2002	2004	2005	누 계 (2005년 말)
총신고	10 (913)	20.9 (1,547)	36.8 (2,245)	35 (2,265)	214.7 (15,510)
총투자	7.1 (776)	10.2 (1,381)	22.7 (2,151)	25.8 (2,232)	135.5 (13,600)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이와 함께 근래 들어서 중국 측에 의한 우리나라에의 투자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대외 투자진출이 아직 미미한 중국적 상황에 비춰 볼 때 고무적인 측면

도 있다고 할 것이다. 국내 유력 자동차 생산업체 한 곳의 최종 인수자가 중국 업체로 선정되는 등 투자대상이 고도화되는 조짐을 보인 바 있으며, 최근에는 그 분야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자 첨단기술에까지 미치고 있어 기술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표 5〉 중국의 대 한국 투자 추이(단위 : USD백만: 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누계 (2005년 말)
금액	70 (816)	249 (441)	50 (522)	1,165 (2,230)	68 (671)	1,755 (4,891)

** 자료 : 산업자원부

그 외 (중국 내)한류와 (중국향)유학으로 상징될 수 있을 문화·교육적 측면에서의 교류에 있어서도 역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또 근래 들어서는 군사적 교류도 모색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고대와 근대 역사에 걸쳐 상대적으로 많은 군사적 충돌을 경험한 양국이 1950-1953년 사이의 한국전쟁으로 인한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현실 하에서조차 1999년 봄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군사교류의 물꼬를 트기에 이르렀으며, 최근에는 양국 간 ‘군사핫라인(Hot-line)’⁷⁾ 을 개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표 6〉 중국유학 중인 주요국 외국인 수

국 가	유학생 수(명)	비율(%)
한 국	35,353	45.50
일 본	12,765	16.43
미 국	3,693	4.75
베트남	3,487	4.49
인도네시아	2,563	3.30

** 기준시점 : 2003년 말 ** 자료 출처 : 中國 教育部

7) 양국은 이미 해상 구조를 위한 합동훈련을 벌인데 이어 2007년 11월 24일부로 해군 및 공군의 ‘군사직통망(핫라인)’ 을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2. 한계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류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거나 개척해야 할 문제와 과제들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양국 간 교역불균형 지속, 국내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 중국 향 투자의 실패 현상이 점차 가시화, 노골화되는 추세와 같은 실무 정책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기술력, 자금 등 자체 역량, 국가브랜드, 대외신인도등 국력적 각도에서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그간 대 중국 비즈니스 등을 진행함에 있어 다른 경쟁국 상품들과 비교해 스스로 갖고 있는 절대적·객관적 품질 측면에서 갖추고 있는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국가이미지⁸⁾ 상의 열세로 인해 제값을 못 받는 등의 손해를 본 사례들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양국 간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시 불이익을 감수하며 양보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 외 잠행하고 있는 문제라 할 간도(間島) 영토주권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경제와 안보적 측면에서의 이해관계와 국력 등에서 밀려 주권국가로서의 주장과 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편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 관련 진행된 한 설문조사⁹⁾ 결과 경제력 측면에서조차 기회로 보는 시각 못지않게 위협 내지 불확실성으로 보는 경우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8) 우리나라 ‘산업정책연구원’조사에 근거하면 우리나라의 브랜드가치는 2004년 기준 전 세계 12위로 평가되었으며, 그 이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바 있다

9) 설문조사 진행 개요

- 일시 : 2006. 11. 17 13:30-18:30

- 장소 :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 주제 : 서울대 중국연구소

- 대상 : 중국 사업 및 연구 관련 직장인, 사업주, 예술인, 교육자, 성직자, 언론인 등을 ‘전문가’와 ‘일반인’ 으로 대별함

- 방법 : 심포지엄 현장에서의 설문지 배포/수거

- 결과 : 전체 433명 응답 ** 박사급 인력 및 중국 실무 5년 이상 전문가 115명 포함됨

〈설문결과 1〉 중국경제의 등장이 한국경제에 주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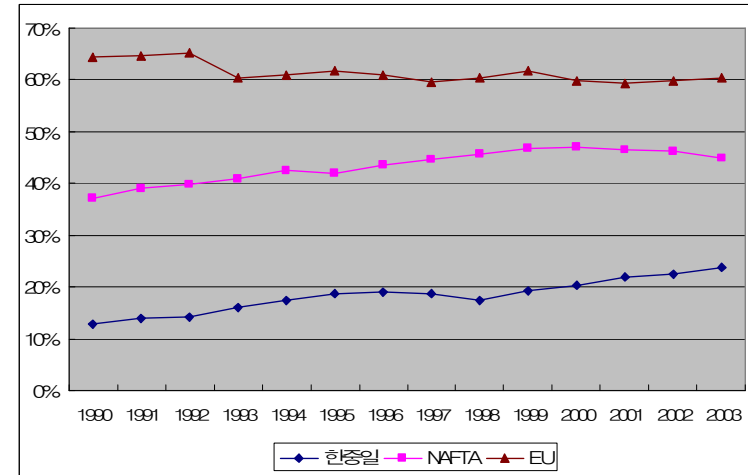
항 목	전체 응답자	전문가	일반
경쟁상대로서의 위협	27.94%	26.23%	28.57%
새로운 시장으로서 좋은 기회	46.34%	49.18%	45.29%
새로운 리스크 및 불확실성	25.72%	24.59%	26.14%
별 영향이 크지 않다	0%	0%	0%
비 고	응답항목에 대한 복수응답, 또는, 무응답 허용됨		

제2절 다자간협력(Multi-party cooperation)의 장점

1. 다자간협력 개요

협력은 서로 다른 주체들이 돕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현상을 가리키며, 다자간이란 그 참여자의 수가 둘을 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 국제사회의 발전추세를 가리키는 표현들 중에 국가의 개념이 희박해진다거나 심지어 국가의 몰락이라고 까지 하는 것들도 등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와 문화 전파의 신속성·광범위성 등에 비추어 상당 부분 뒷받침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로 인해 서로 다른 국가와 체제 사이의 장벽이 낮아지는 한편으로 '블록(Block)화 현상' 이라는 역내적 통합·협력 경향도 심화되고 있다.

〈그림 1〉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비중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같은 국제사회의 발전추세는 역내이든지 역외이든지를 불문하고 세 개 이상의 국가 또는 기타 실체적 주체들의 참여를 의미하는 다자간협력의 추구하고 발전을 가져오게 됐으며, 소그룹별, 혹은, 대규모 공동체적 형태를 띤 채 그 적용 및 응용 가능 분야에 있어 경제·문화·안보·환경 등을 망라하고 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과 같은 경제적 분야와 북핵문제 공동 대응 같은 정치적 이슈 등을 통해 다층·다각적인 국제 역학과 협력이 작용해 오고 있으며, 이는 바로 양국 관계의 성립과 유지가 단순히 상대방과의 쌍무적 성격만을 띠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에도 노출되는 가운데 다자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다자간협력은 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개별 내지 공동 이익이 창출됨을 전제로 하며, 단, 그를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갖추고 있는 장점을 통한 기여와 함께 일정 부분의 희생도 따르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구체적으로는 분담금 부담·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영공 및 영공 활용 허용 등의 형태를 취하곤 한다.

2. 장점 및 기대 효과

다자간협력은 궁극적으로 배타적 요소 보다 거시적 통합과 융합을 지향해야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서, 그를 통한 장점 및 기대 가능한 효과로서는 참여 각방 상호간에 자원·기술·자금 등 측면에서의 교환·지원·공유함을 통해 개별적이거나 공동의 이점을 취할 수 있고, 상대방이 목표시장에 대해 이미 진출함 등을 통해 축적하고 있을 노하우(Know-how)를 습득할 기회가 부여될 수 있으며, 합작파트너의 위상 활용 내지 공동의 시너지(Synergy) 창출을 통해 대외위상 및 협상능력 강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들이 있다.

이외에 사업별 참여 주체들이 경제적 이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넘어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추구할 수 있는 목표로서는, 다자간협력과 같은 상호보완적 프로젝트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투자의 방지를 가능케 할 수도 있어 자원절약과 지구환경보전이라는 인류사회적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들은 연구나 사업에 참여하는 외부 측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주재국으로서도 적지 않은 과실을 취할 수 있는 ‘멀티윈(Multi-win)’ 모델의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적 관점에서 볼 때 근세 역사 전개 과정에서 겪은 불행한 사례들 이외에도 최근 서구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대 중국 경제론’에 비춰서도 자국 내에서 전개되는 외국 측만에 의한 사업은 경제 내지 감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으나, 해당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 데 있어 도입하고 추진하는 다자간협력은 근본적으로 사업의 발전을 동기로 하고 있으므로 중국 측에게도 외자유치·선진화 학습 효과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조류에 갈수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측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다국, 다자간 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며 그를 대외적으로 주창하기조차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국제정세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평화요청, 협력모색, 발전 촉진의

시대적 조류를 막을 수 없다.....세계 평화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 불확실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평화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세계 각국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다자간 협력을 실시하는 가운데 유엔이 핵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각국 의회연맹은 유엔과의 실질적인 상호 작용 및 협조를 강화해 더욱 긴밀한 업무 관계를 구축하고 각국 의회 간 협력의 효력과 수준을 향상시켜 한다. 이밖에 각국 의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의회 간 교류 및 합작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세계 각국의 의회와 공동으로 의회연맹의 역할을 충분히 이용하여 각종 다자간협력을 전개하면서 평화, 번영, 조화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¹⁰⁾

〈설문결과 2〉 향후 정부/기업이 대 중국 경제관계에 취할 바람직한 입장

항 목	전체 응답자	전문가	일반인
더욱 긴밀히 해야	40.78%	42.11%	40.31%
다른 나라들과의 균형	53%	55%	52%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으로 전환	5.76%	2.63%	7%
비 고	응답항목에 대한 복수응답, 또는, 무응답 허용됨		

제3장. 대 중국 다자간협력 분야와 모델

제1절 추진 주체와 분야

다자간협력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체와 분야에 대해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으나, 대체로 정부 차원의 것과 민간 측면의 것으로 구분되어 이해될 수 있다.

10) 2005년 9월 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국회의장회의’ 전체회의에서 우방귀(吳邦國)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다자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며 한 말로서, 당시 그는 다자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첫째, 상호 존중 : 상호존중, 평등대우의 기초에서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한다. 둘째, 상호 신뢰 : 대화를 통해 상호간 이해를 심화하고 상호신뢰를 증진해 공동 이익을 계속 확대한다. 셋째, 공동 발전 : 특히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하고 세계경제가 균형적이고 안정적이며 공동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발전해야한다는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1. 정부

정부 차원의 다자간협력 추진은 순수 개별 국가로서의 경우와 국제공동체적 레벨의 것으로 대별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외교통상부 산하에 ‘다자통상국’¹¹⁾을 설치한 이래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협상과 사업에 참여해 오고 있다.

1) 개별 국가

이는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의 사업 추진으로서 검토가 가능한 분야로서는 중국을 포함한 다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역내 단일화폐 창설, 역내 금융협력, 공동 환경오염 방지기구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모두 이미 연구 내지 논의가 시작된 바 있으며,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진전도 거두고 있다.

〈그림 2〉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 자료 : 한국무역협회



11) 연간 및 중장기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총괄·평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시행 및 총괄 조정, 세계무역기구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 조정,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에 회부된 우리나라 관련 통상분쟁 해결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2. 국제공동체

이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국제적 기구 내지 협정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데, 양국은 ‘ASEAN+3 협의체’, ‘방콕협정’¹²⁾에의 참여를 통해 공동의 이익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 asia-europe meeting)’ 등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기구들이 다수 있는바, 해당 논의의 규모와 범위에 있어 구별되기도 하나,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다자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2. 민간

1) 기업

이에는 개별 업체 단독적인 경우와 그룹 차원의 것 등이 망라될 수 있으며, 이익 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나라 업체들 사이에 각자 갖추고 있는 자본, 기술, 원자재 등에서의 장점을 출자해 특정 제품의 개발이나 프로젝트의 수행을 추진하는 경우, 특정 기술의 개발이나 프로젝트의 수행을 시기별·단계별로 구분해 각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을 가정할 수 있다.

2) 학계

학계 차원에서도 인문과 사회 및 문화예술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자간협력이 가능할 것으로서, 특히 중국 측의 고구려역사 왜곡에 대한 주변국들과의 공동 연구 언어학적 측면에서 기존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경향¹³⁾에서 벗어나 한국·일본, 중국을 포괄하는 동북아 언어권적 차원에서의 공동 연구 등을 우선 추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제기할 수 있다.

12)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산하 개발도상국간 특혜 무역 협정으로 한국과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동 협정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관세 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

13) 남재우, 「중국인과의 대화」, 인천, 진원, 2007, 123쪽.

3. 기타 - 안보협력

중국의 부상은 국제 역학적 측면에서 경제 못지않게 군사적 각도에서도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개별 국가 관계와 국제공동체적 관계 모두에 있어 해당되는 현실적 상황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국방력 증강은 인근하며 군사적 대치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타이완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곤 하며, 그 결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다국적 합동 군사훈련이 전개되기도 한다.

이러한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나라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중국의 현 영토가 수많은 전쟁과 침략의 역사를 반복했기 때문¹⁴⁾ 임을 감안할 때, 국가와 영토 보전의 측면에서 더욱 직시하고 대처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사실상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휘,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되는 것이 타당할 소위 '동북공정(東北工程)'도 궁극적 목표는 우리 옛 왕조인 고구려의 영토¹⁵⁾ 전반에 대한 '역사적 소유권'¹⁶⁾을 주장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수 있음을 가정할 절박성이 있다고 하겠다.

“한국과의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¹⁷⁾ 따라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국경을 바로 접하고 있는 우리 국토에 갖는 의미를 냉철히 파악하는 가운데 냉철한 대응책을 세우고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중 양국 간 군사 교류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생존학적 개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집단안보체제 구축 차원의 다자간 군사협력을 추진할 당위성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14) 남재우, 「머나먼 이웃 중국」, 서울, 간디서원, 2005, 349쪽.

15) 단순히 현 중국 '동북삼성(東北三省 ** 遼寧, 吉林, 黑龍江 을 가리킴)'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중부지역에까지 이른다.

16) 1950년대 초반 중국이 티벳(Tibet)을 침략하며 내세운 논리로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17) 2006년 초 중국의 한 신문사 사장이 공식 회식석상에서 피력한 의견이다.

제2절 실무 모델 - 황해프로젝트

이는 지난 1997-1999 년의 2년간 서방선진국 한 곳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심도 있는 개척과 경제협력 추진에 있어 천연조건 · 산업구조상 서로 다른 장점을 갖고 보완 관계에 있는 한국과의 시너지(Synergy) 발휘를 통해 수출입 · 합작사업 등의 분야에서 공동이익을 도모하지는 것을 기본 목표로 입안하고 진행한 국가 차원의 다자간협력 프로젝트이다. 예를 들어 중소 규모의 개별적 투자진출에서부터 에너지사업 · 사회기반시설 · 두만강개발 등 대규모 사업 수행을 위한 양국 업계와 업체들의 컨소시엄(Consortium)형성에 이르기까지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며, 따라서 자원이 빈약하고 선진 경제권과의 협력이 절실한 우리로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가치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동시에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한 장기적인 전략적 제휴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체 등 관련 경제주체들의 공동 이익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바, 양국간 공동이익 실현을 넘어 주재국인 중국의 입장에서도 득이 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사업이다.

특히 상대방 국가 측에게도 우리 민족과 기업들이 지난 수천 년 간 중국과의 교류와 교역을 통해 쌓아 온 문화적 · 역사적 이해를 활용하여 현지 시장개척 · 리스크관리 등에서의 효율을 제고하는 경제적 측면 외에 동북아시아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어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에서의 보다 본격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해 주는 다각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제4장.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 중국 연구와 교류의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발전 지향적 개념과 시도로서의 다자간협력에 대해 이해하는 전제 위에 인문 · 경제 · 안보적 측면에서의 추진 가능 모델들을 모색해왔다.

경제와 안보를 포함한 우리나라 각 부문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사실은 희망 못지않게 경계와 위기의식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보장하는 것이 한-중 관계를 연구하고 추진하는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주체적이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한 방도로서 다자간협력의 가치와 효용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날로 글로벌화 다중심(多中心)화 하고 있는 국제 사회적 흐름에 부합되는 한편으로 한-중 실질 교류 추진에 있어 새로운 시도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중국의 자체 역량과 국제적 위상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 개념을 향후 우리나라 대 중국 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발전시키면 우리가 갖춘 지정학적·산업발전 단계적 역량을 발휘하는 가운데 기술과 자본이 앞선 선진국과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자원부국들을 망라해 전 세계적 네트워크 구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인문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치와 실리를 넘어,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강대국들 간의 이해충돌 구도 하에서 균형자적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데 있어서의 현실적 방법론으로도 발전될 수 있어 우리나라가 '동북아 허브(Hub)화' 하는 데 있어서의 한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차 기획하고 전개될 대 중국 관련 학문적 연구와 사업의 추진에 있어 기존의 양자적·쌍무적 틀에 안주하지 말고 다국·다자간 협력의 가치와 효용을 인식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그를 위한 인적·실무적 인프라도 구축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參考文獻>

김익수, 「중국투자론」, 서울, 박영사, 2003.
 남재우, 「머나먼 이웃 중국」, 서울, 민족문화사, 2003.
 남재우, 「한-중 통상무역 커뮤니케이션 연구」, 숭실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남재우, 「머나먼 이웃 중국」, 서울, 간디서원, 2005.
 남재우, 「중국인과의 대화」, 인천, 진원, 2007.
 신주식, 「중국비즈니스전략 308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전해중, 「한-중 관계사 연구」, 서울, 일조각, 1970.
 최필규, 「중국을 넘어야 한국이 산다」,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4.
 「글로벌 경영시대의 한-중 기업 간 협력 관계의 과제와 전망(학술세미나)」, 서울, 송실·인하·중앙 대학교 학원, 2006.
 「글로벌시대 동북아경제의 미래와 활로(국제세미나)」, 서울, 한경비즈니스, 2005.
 「불법복제상품 방지를 위한 한-중-일 국제세미나」, 서울, 한경비즈니스, 2006.
 「사례로 읽는 중국 투자경영실무」, 北京, 중소기업진흥공단, 2001.
 「중국경제의 부상과 중국시장 활용방안」, 서울, 산업연구원, 2001.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산업의 대응과제」, 서울, 한국무역협회, 2001.
 「중국의 지역경제구조와 진출전략」, 北京, 대한상공회의소, 1996.
 「중국인의 시각에서 본 대 중국 투자기업 현지화 실태조사」,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2001.
 「중국 진출기업 경영상담 사례집」, 北京, 대한상공회의소, 1998.
 「중국 투자제도 및 관행」,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2001.
 「중국, 2006년 평가와 2007년 전망」, 서울,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 삼성경제연구원 외, 2006.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현황과 전망」, 北京, 대한상공회의소, 1997.
 「한-중 교류센터 정책토론회집」,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2001.
 「한-중 수교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2002.
 「동아일보」
 「The Korea Times」
 C. Henderson. 「China on the Brink」(이기문 번역, 「벼랑 끝에 선 중국」, 서울, FKI미디어, 1999)
 和中清, 「中國市場讀方」, ASUKA F PRODUCTS INC., Tokyo, 2001 (정후식 번역, 「13억 중국시장의 이해」, 서울, 진리탐구, 2003)
 程大爲, 「商務外交」,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3
 徐仲孟, 姜守危, 許宏濤, *Marketing in China*, Taipei, Business Weekly Publications, 2001 (백운영 번역, 「차이나마케팅」, 서울, 은행나무, 2003)
 「JETRO 中國經濟」, 東京, 日本貿易振興機構
 www.kita.net

www.donga.com
www.koreaemb.org.cn

< ABSTRACT >

There has long been existing a kind of inseparable conne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t showed the rare case of achievement in world history, being backed by the statistics in economic exchanges and others. especially since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August 1992 under the nam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spectively.

Taking a look at the last 20-30 years of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now proves the high level of interdependence in various sectors, we can find the fact that there appeared a rather distinguishable symptom of advantage in Korea's favor in contrast with the common understanding, which had been prevail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On the other side, along with the blooming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China, there co-exists the dark shade of failure and setback which, coming from Korea's inferiority in competitive edge and/or in national power itself, may be supported by the actual cases of dispute in trade, history. And, in view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region politically as well as economically, it seems to be a kind of desperate duty being imposed on Korea to find out ways of sustaining the positive trend.

A country can exist and survive depending on her identity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which the current trend may be characterized as that of globalization and multilateralism, continuously stressing and expanding mutuality and exchanges among more than two different countries. To remain alive and competitive under the ever-changing atmosphere, she should maintain and improve her domestic and foreign capacity. And, in an effort to pursue that goal, it is required for her to search out and implement a new paradigm.

Multilateral cooperation, allowing participants the opportunities of contributing their indigenous and/or comparative resources in the areas of finance, technology and manpower,

can meet the private or the common interests of members, of which the merits have been officially acknowledged by the Chinese authority. Saving the resources thru conducting the joint projects, they may expect to realize the long-term but impending ideals lik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t may be studied and implemented both on public level and on private one taking the form as an international cooperative body or as a small group.

Retrospecting Korean experiences of research and/or business regarding China, we can see most of them were based on two-way and bilateral practices, which may be the result of her self-complacent attitude about the achievement to date and/or lack of ability to move beyond. Under the situation which keeps getting enlarged and multi-layered, it deserves time and effort to probe into the possibilities of activa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even in the Korean approaches toward China, thru which they may be able to overcome the shortage, and, work out a practical method of opening and promoting the new vision as well.

As the potential and promising areas of applying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in Korean approach toward China, it can be suggested those for private enterprises, academic circles and national security. And, it may be said that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has already been put into force in Korean-Chinese relationship to some extent thru those of project-financing, jointly participating in the cooperative activities within the frameworks of APEC, ASEAN+3, ESCAP. In a sense, even the Korean-Chinese relationship during the Cold War era might be understood as the outcome of power-mechanics set by the superpowers.

For an actual example, the Yellow Sea Project can be introduced. It has been conceived by the government of a developed country and been executed in China. The concept was identifying & developing business opportunities in trade, investment, financing, etc. by adopting the proactive manner of utilizing 3rd party's presence and capability there like those by the South Korean side, thus providing the Korean side with the opportunities of forging partnership with a developed country as well. Korean companies have been running very active and successful businesses investing in many and diversified projects in China. Thru conducting the Project, the developed country could expect to share the South Korean capability, and, to upgrade her own presence in the

region which had become the center of world interest more than ever.

On top of the above described merits, applying the concept of multilateral cooperation, Korea may secure the chance of playing the role as the balancer geopolitically as well as industrially, projecting to attain the goal of becoming the regional hub.

As a conclusion, it is suggested for the Korean side to research and implement the concept of multilateral cooperation in her approaches toward China in a futuristic manner, getting prepared with resources in manpower and in the other capacities.

Key Words : Long-term preparedness, Global, multifaced perspective and efforts, New trials of international trend, Producing the common benefits, Geopolitical and industrial balancer, Resources in manpower and in the other capacities)